

국내·외 포장전시회 개요 및 특징

About Packaging Exhibition

우리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를 통해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고 선진 포장 기술과 문화를 접하는 등 포장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세계 3대 포장전시회라 불리는 독일 인터팩(Interpack)을 비롯한 미국 PACK EXPO, 일본 도쿄팩(Tokyo pack)은 지난 40여년 동안 세계적인 국제 전시회로 자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 외에도 프랑스 엠بال라쥬(EMBALLAGE), 이탈리아의 IPACK-IMA, 도쿄팩과 격년으로 개최되는 일본의 제팬팩, CMM JAPAN(컨버팅 기재 특수인쇄전), 2년 주기로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컨버팅 전문전시회 CMM INTERNATIONAL(국제 컨버팅기재전) 등 포장관련 해외 전시회는 각 전시회 별로 특성에 맞는 제품 출품을 통해 독보적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 한편 국내 포장전시회는 국내 최초의 포장전시회인 SEOUL PACK과 KOREA PACK 두가지 박람회기 있는 상황으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국내·외 포장전시회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 편집자주 -

◆ 독일 Interpack ◆

Interpack은 지난 1958년부터 시작된 국제 포장전시회로 3년마다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포장전시회이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포장 및 제과기계의 1/5이 독일에서 제작되는 등 세계 포장기계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현지에서 개최되어 온 Interpack은 전통과 규모면에 있어서 단연 세계 최고임을 자랑한다.

대형팩에서 젤라틴 캡슐, 플라스틱 병에서 유리 향수병 뿐만 아니라 기계류 보호 포장에서 점착테이프, 고성능 기계, 포장테이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포장기계를 비롯한 포장재료 및 제과기계의 전시에 집중하고 있는 Interpack은 세계 최대 규모만큼이나 원자재 처리에서부터 포장에 이르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Interpack 최대 장점은 50%가 넘는 외국업체의 참가율인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세계 시장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일목요연하게 조망하고 비교할 수 있다. 지난 Interpack 2002에서는 세계 포장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수 행사를 동시 개최, 200,000여명의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Interpack 2002의 전체 참여 부스는 포장기계 분야가 60%, 나머지 부스는 제과기계 및 포장재 소재가 전시됐으며 특히 재활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신소재 코팅 포장소재 및 물리적 멸균 공정 등이 주목을 받았다.

◆ 미국 Pack Expo ◆

미국포장기계협회(PMMI)의 주최로 격년제로 열리는 Pack Expo는 1956년 클리블랜드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Pack Expo는 3년마다 열리는 독일의 Interpack과 포장기자재 전문전시회로는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Pack Show이다. 지난 96년까지 개최됐던 Pack Expo는 미국내의 전시회를 면치 못할 정도로 미주 지역 위주의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American Pack Expo라는 별칭을 면치 못했었지만 지난 1998년부터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전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까지 참여, 세계적 포장기자재 전시회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지난 Pack Expo 2002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포장자동화를 비롯한 팰리타이징 시스템 등이 출품돼 패키징 이노베이션(Packaging Innovation)을 잘 드러냈다.

◆ 일본 Tokyo Pack ◆

지난 1966년 처음으로 개최된 Tokyo Pack은 일본포장기술협회(JPI)의 주최로 격년제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포장전시회이다. "인간과 지구를 위한 포장의 진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Tokyo Pack은 일본 포장산업 발전의 매개체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 포장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Tokyo Pack은 포장재료를 주제로 한 포장전에서는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고 있으며 Tokyo Pack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포장재료 메이커들을 대부분 살펴볼 수 있다.

출품업체별로 살펴볼 때 Tokyo Pack은 포장자재 관련 업체가 전체의 35%정도를 차지하며 뒤를 이어 포장기계, 관련 기자재, RP프레스, MH물류기기 등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kyo Pack은 생산에서부터 전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0년부터는 물류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해 동경국제포장회의 및 Good Packaging전시회도 병행, 해외에서도 출품 및 참관자들의 관심을 유도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5일간 진행된 Tokyo Pack 2002에서는 총 480개에서 2,700 규모의 부스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24개국에서 포장관련 제품을 출품, 포장재료와 기기가 균형적으로 출품됐으며 특히 전체의 18%가 신규 출품사로 구성됐다는 특징이 있다.

◆ 프랑스 EMBALLAGE ◆

프랑스 파리에서 2년마다 열리는 프랑스 국제 포장 전시회(EMBALLAGE)는 지난 6년동안 독일의 Interpack에 견줄만한 전시회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 2000년에 열렸던 EMBALLAGE 역시 관람객의 94%가 신규 공급 업체와 신규 장비를 찾았으며 이 중 92%는 실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밝혔다. EMBALLAGE 2002에서는 약 2,700여개의 세계 유명 생산 업체와 장비 업체들이 제품 포장과 관련된 각종 기술과 기계를 전시했으며 115,000명의 방문객들에게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새로 발명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MBALLAGE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해외업체 및 관람객(2000년의 경우, 전체 출품업체의 50%가 해외 출품 업체였으며 34%의 관람객들이 해외 관람객이었음)들이 전시회에 참가해 온 전시회로 유명하다.

핀란드와 대만이 처음으로 국가관 형태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더라도 이 같은 경향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출품 업체를 분야별로 나누어 전시장을 구성하는 것(Sectorisation)은 EMBALLAGE의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관람객들의 편리한 전시장 관람을 돕기 위해 출품 업체들을 업종(포장재와 포장 용기, 포장 기계, 인쇄 등)과 주요 분야(식품, 액체, 미용/건강 등) 별로 분류해 관람객들이 손쉽게 출품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특정 분야 업체나 혁신적인 제품을 다루는 업체들은 명품 공간(Espace Luxe)이나 라벨링 존(Zone Etiquettes) 등 특정 코너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EMBALLAGE 는 IPA(프랑스 식품 공정 및 기계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 IPA 를 통해 총 1,200개의 출품업체와 60,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식품 안전과 분석, 공정 과정, e-manufacturing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EMBALLAGE 는 포장 산업의 미래와 경향(트렌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포장산업 아이디어의 보고"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탈리아 IPACK-IMA ◆

3년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IPACK-IMA(Int'l packaging, material handling & machinery for the food industry)는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 파악이 가능하며 특히 가공기계, 포장기계, 관련장비, 기기, 부품, 약세사리 등이 전시되는 세계적인 포장 전시회이다.

지난 달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IPACK-IMA 2003에서는 약 1,900여개사와 79,000여명이 참관해 포장기술, 포장기계, 원재료, 원자재 제조기계, 플라스틱성형기계, 연포장가공기계를 비롯해 위험 및 유해 폐기물 처리기술, 포장관련 특허제품 및 포장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팩(SEOUL PACK) ◆

국내 최초의 포장전시회인 SEOUL PACK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로 그 모태는 지난 1985년 시작된 KORPACK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포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KORPACK은 포장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 촉진, 포장의 적정화와 원가절감 유도, 상품의 품위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물적 유통 합리화로 기업의 비용 절감 모색 등의 취지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당시 한국포장디자인센터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1985년에 개최된 KORPACK에서는 9개국 92개 업체에서 159부스 규모가 출품됐으며 그 중 포장 기계류의 출품물이 많았었다.

1989년에는 전시회 명칭을 KORPACK에서 SEOUL PACK으로 변경하고 활성화에 주력하게 됐으며 95년에는 역대 최고의 17개국에서 139개 업체가 참여, 전체적인 전시회 운영 장치업체의 업무 지원이 돋보였고 레이아웃 구성면에서 향상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난 99년 개최된 SEOUL PACK은 (사)한국포장협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 포장기계류 위주의 전시회에서 탈피해 필름, 가공 및 그라비아 인쇄 등 연포장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국제 수준의 전시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포장전시회의 초석을 마련하며 발전해 온 SEOUL PACK은 내년 2004년 4월 서울국제식품전시회와 함께 공동 개최될 예정이다.

◆ 코리아팩(KOREA PACK) ◆

한국포장기계협회, (주)경연전람, 월간포장이 주최하는 KOREA PACK은 1992년 제1회 IPP전시회로 시작, 올 2003년 8회째를 맞게 됐다. IPP라는 명칭을 지난 2000년 Packaging Week으로 변경하고 2002년 KOREA PACK으로 거듭나 발전해 오고 있다. KOREA PACK은 각 산업별 제품의 생산초기 단계에서부터 완성품의 물류 직전까지의 제품생산기술 및 포장공정기술이 총망라되어 전시되는 전문 전시회로 지난 KOREA PACK 2002에서는 약 20개국 250여 국내·외 업체들이 참가, 전시기간 중 상당한 상담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오는 5월 서울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리게 되는 KOREA PACK 2003에서는 식품포장기자재 및 식품가공기계 등이 전시되는 FOODEX, 제약, 화장품산업 포장공정기술 및 생산기술이 선보이는 COPHEX, 기타산업포장공정기술이 선보이는 IPP으로 구분, 관심분야별 관람을 용이하게 했다.

KOREA PACK 2003은 지난해에 비해 참가사 수 및 전시장 규모를 2배로 늘렸지만 공동 주최하는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원사들의 대거 참여에도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여파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본 특집에서는 다음달인 5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릴 KOREA PACK 2003 참가업체들 중 눈을 끄는 출품 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특성 등을 미리 살펴 보았다.